

인공지능의 역사와 발전

1. 서론: 인공지능의 탄생

인공지능(AI)이라는 용어는 1956년 다트머스 컨퍼런스에서 처음 사용되었지만, 그 개념적 뿌리는 앨런 튜링과 같은 선구자들의 연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초기 연구는 논리적 추론과 문제 해결 능력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인간의 지능을 기계로 모방하려는 시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2. 제1차 AI 봄과 암흑기

1960년대와 70년대에는 정부와 기업의 대규모 투자에 힘입어 AI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습니다. 자연어 처리, 기계 번역 등에서 초기 성과가 있었으나, 당시 컴퓨팅 파워의 한계와 복잡한 현실 세계 문제 해결의 어려움으로 인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며 'AI 겨울'이라 불리는 암흑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3. 전문가 시스템과 제2차 AI 봄

1980년대에는 특정 분야의 전문가 지식을 규칙 기반으로 저장하고 추론하는 '전문가 시스템'이 등장하며 제2차 AI 봄을 이끌었습니다. 이는 제한된 영역에서는 성공적이었으나, 지식 획득의 어려움과 유연성 부족이라는 한계를 보였습니다. 이후 머신러닝과 신경망 연구가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4. 주요 발전사 요약

인공지능의 발전 과정에서 중요한 사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주요 사건	의의
1950	튜링 테스트 제안	기계의 지능을 판별하는 기준 제시
1956	다트머스 컨퍼런스	'인공지능' 용어의 탄생 및 학문 분야 정립
1997	IBM 딥 블루, 체스 챔피언 꺾음	특정 분야에서 인간을 능가하는 AI 능력 입증
2010년대	딥러닝 기술의 급부상	이미지 인식, 음성 인식 등에서 혁신적 성능 달성